



질병관리청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5. (총 20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이 동 우, 최 은 경		043-719-90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455명(해외유입 3,14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46명으로 총 20,978명(89.4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08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5명(치명률 1.6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9.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5	56	2	0	1	0	0	0	0	26	1	1	0	3	0	4	1	0
누계	20,306	4,741	358	7,049	802	437	327	109	61	3,728	197	135	417	83	133	1,475	215	39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9.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9	0	15	2	2	0	0	6	13	3	16
누계	3,149	23 (0.7%)	1,518*** (48.5%)	574*** (18.0%)	936 (29.7%)	83 (2.6%)	15 (0.5%)	1,470 (46.7%)	1,679 (53.3%)	1,919 (60.9%)	1,230 (39.1%)

** 아시아(중국 외) : 우즈베키스탄 8명(8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필리핀 3명(2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요르단 1명(1명), 유럽 : 벨라루스 1명(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 : 미국 2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터키→우즈베키스탄)

【확진자 관리 현황* (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중증환자**	사망자
9.24.(목) 0시 기준	20,832	2,116	126	393
9.25.(금) 0시 기준	20,978	2,082	128	395
변동	(+)146	(-)34	(+)2	(+)2

* 9월 24일 0시부터 9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 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9월 25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9.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가족 및 지인 3명

○ 서울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9.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원생 1명, 가족 1명

○ 서울 동대문구 성경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모임참석자	어린이집 전파		가족 및 지인
			종사자	원생	
전일	13	6	2	2	3
금일	18(+5)	9(+3)	2	2	5(+2)

* (구분) 강서구 발산대우주어린이집 관련 역학조사결과 지표환자는 동대문구 성경모임(9.13., 9.18.)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집단사례명칭을 변경

○ 서울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및 방문자	가족 및 지인
전일	43	24	19
금일	46(+3)	25(+1)	21(+2)

○ 경기 안양시 음악학원과 관련하여 9.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지표포함) 2명, 수강생 7명, 가족 2명

- 9월 25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3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3명, 외국인은 16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우즈베키스탄 8명,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3명, 러시아 1명, 미얀마 1명, 요르단 1명), 유럽 2명(벨라루스 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 2명(미국 2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발생한 추가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정확하게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확진자가 역학조사 초기에 방문판매 업소 방문 등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는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확진자의 직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추가 확산이 발생하게 된다.
 - 최근 광주 상무지구유흥시설이나 울산 지인모임 사례의 경우 2차 이상 전파 발생으로 각각 26명,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출근을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등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크다.
 -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79조)

- 9.22일 현재 역학조사 방해로 수사 중인 사례는 64건(160명)이며, 기소된 사례 18건(28명)이고,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격리·치료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상, 슬기로운 방역생활' 모범사례 발굴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 ① 캠페인 명칭 짓기 공모(9.18.~10.5.), ② 사례 공유 캠페인 추진(10월 중), 이벤트 참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소셜채널(페북, 인스타, 카카오톡채널 등)에서 확인 가능

○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및 국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 모범사례를 발굴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 우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캠페인 이름을 짓는 명칭 공모(9.18.~)는 질병관리청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 인스타그램(공모전링크) : <https://www.instagram.com/koreadca/> (<https://url.kr/BConpy>)

○ 아울러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 '디지털 공모전'에서 선정되는 모범사례들은 브리핑 및 범부처를 통해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연휴에 들어가는 국민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내자고 당부하였다.
- 기존에도 연휴나 휴가 기간을 거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억제됐던 환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던 바 있다.
- 금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어르신 등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만큼 직접적인 방문은 자제하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마음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나 각종 실내 장소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이동할 때는 ▲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 대중교통수단 등의 온라인예매나 모바일체크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 필요한 간식 등은 미리 준비해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최소한도로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향·친지를 방문해서는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특히 어르신 등을 만날 때는 더욱) 준수하고, ▲ 식사 시에도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 차례 등 제례 참석 인원은 최소화,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
4.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별첨>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① 일일 확진자 현황 (9.25. 0시 기준, 23,455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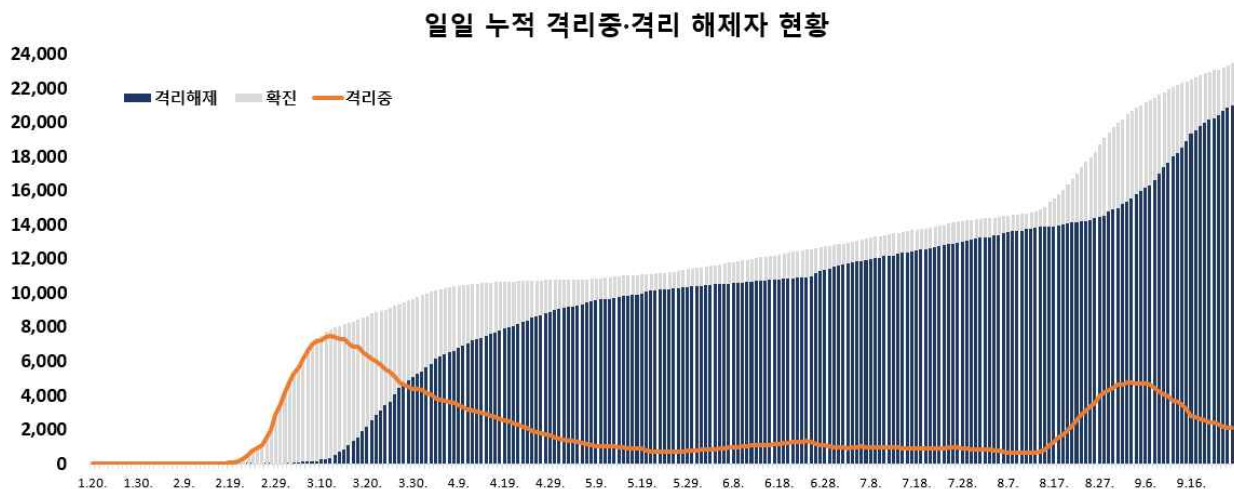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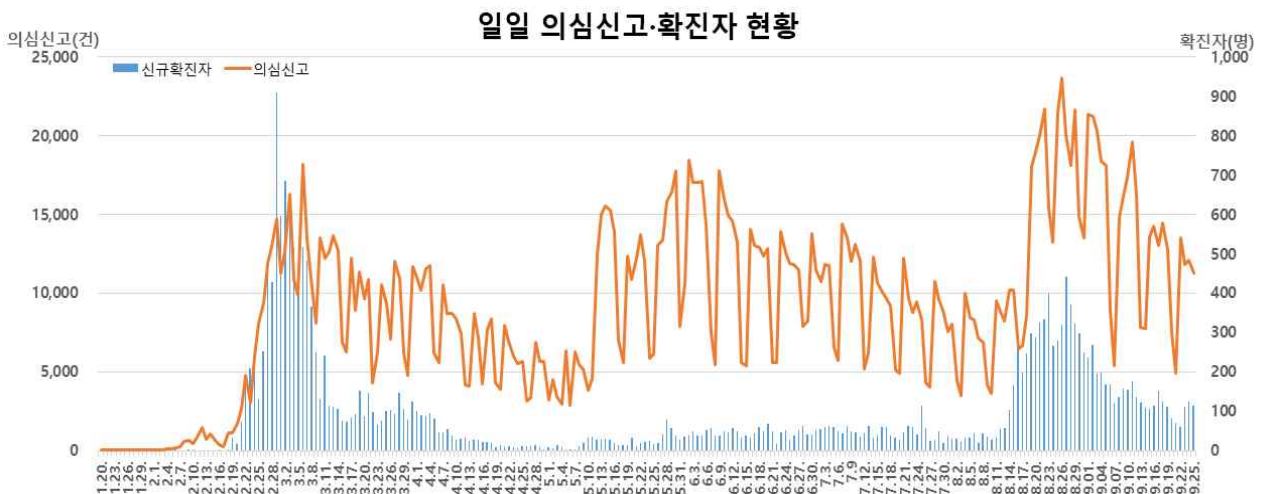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9.24.(목) 0시 기준	2,268,999	23,341	20,832	2,116	393	20,782	2,224,876
9.25.(금) 0시 기준	2,280,276	23,455	20,978	2,082	395	19,575	2,237,246
변동	+11,277	+114	+146	-34	+2	-1,207	+12,370

* 9월 24일 0시부터 9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9.25. 0시 기준, 23,45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56	1	5,152	(21.97)	52.93
부산	2	1	407	(1.74)	11.93
대구	0	0	7,129	(30.39)	292.59
인천	1	2	901	(3.84)	30.48
광주	0	2	490	(2.09)	33.64
대전	0	0	357	(1.52)	24.22
울산	0	0	145	(0.62)	12.64
세종	0	1	75	(0.32)	21.91
경기	26	1	4,299	(18.33)	32.44
강원	1	0	223	(0.95)	14.48
충북	1	2	167	(0.71)	10.44
충남	0	1	475	(2.03)	22.38
전북	3	0	120	(0.51)	6.60
전남	0	0	168	(0.72)	9.01
경북	4	2	1,530	(6.52)	57.46
경남	1	0	288	(1.23)	8.57
제주	0	0	59	(0.25)	8.80
검역	0	6	1,470	(6.27)	-
총합계	95	19	23,455	(100)	45.24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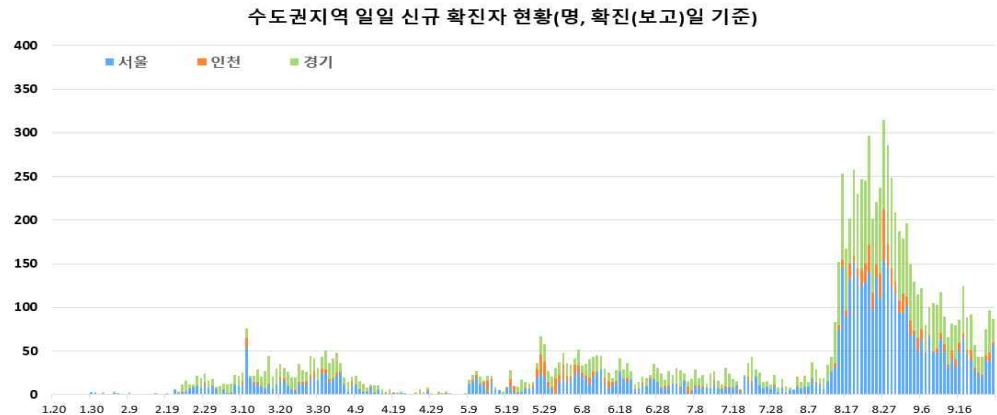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2,082	872	68	37	108	24	44	11	10	531	14	26	93	27	33	50	27	9	98
격리해제	20,978	4,228	335	6,899	785	463	310	132	65	3,700	206	140	379	93	135	1,425	261	50	1,372
사망	395	52	4	193	8	3	3	2	0	68	3	1	3	0	0	55	0	0	0
합계	23,455	5,152	407	7,129	901	490	357	145	75	4,299	223	167	475	120	168	1,530	288	59	1,470

* 9월 24일 0시부터 9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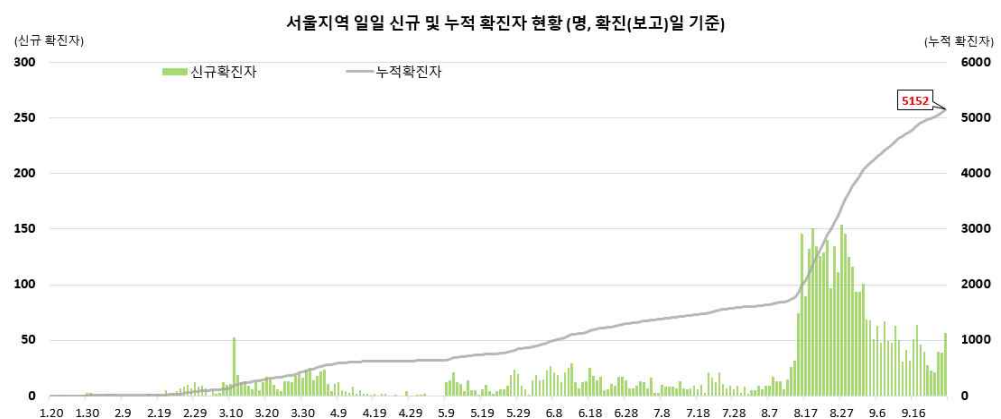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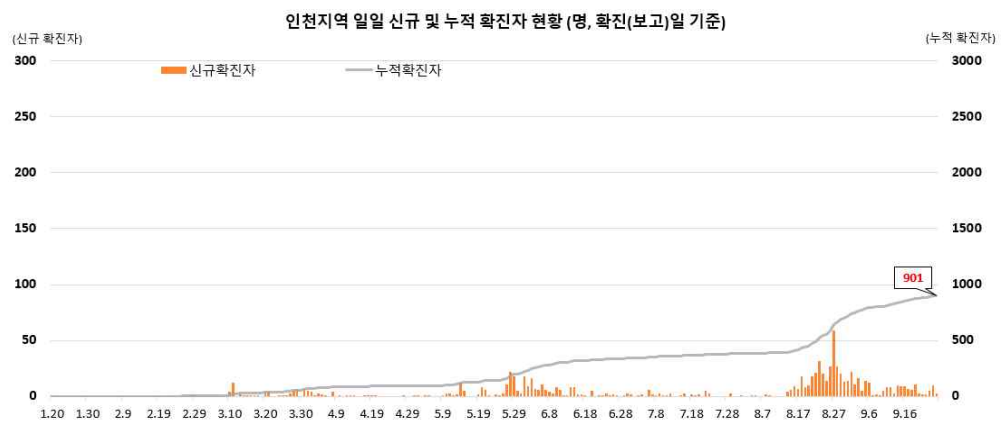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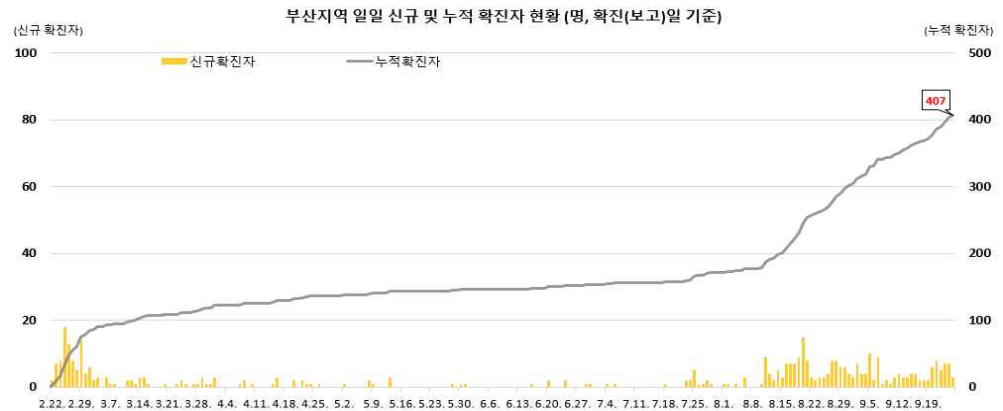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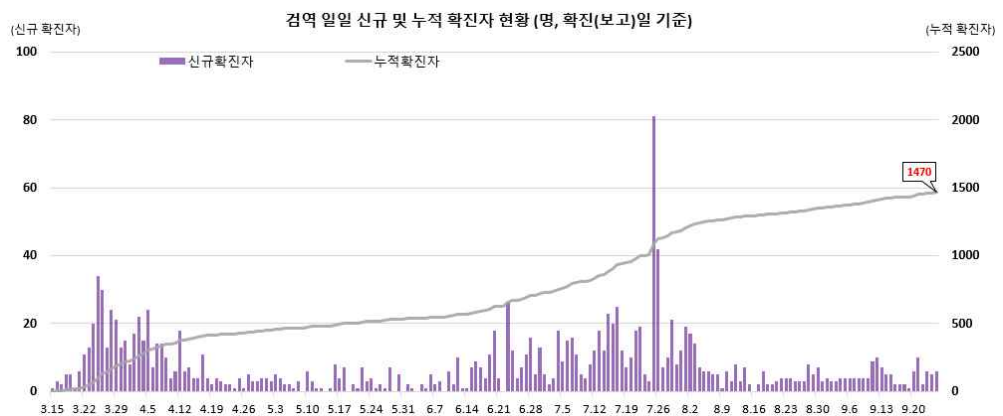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3 성별 · 연령별 확진자 현황 (9.25. 0시 기준, 23,45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14 (100)	23,455 (100)	45.24
성별	남성	54 (47.37)	10,767 (45.90)	41.63
	여성	60 (52.63)	12,688 (54.10)	48.83
연령	80세 이상	10 (8.77)	959 (4.09)	50.49
	70-79	14 (12.28)	1,878 (8.01)	52.06
	60-69	22 (19.30)	3,712 (15.83)	58.51
	50-59	19 (16.67)	4,351 (18.55)	50.20
	40-49	15 (13.16)	3,129 (13.34)	37.30
	30-39	14 (12.28)	2,855 (12.17)	40.52
	20-29	12 (10.53)	4,720 (20.12)	69.35
	10-19	3 (2.63)	1,285 (5.48)	26.01
	0-9	5 (4.39)	566 (2.41)	13.6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4 사망자 및 위 · 중증 환자 현황 (9.25.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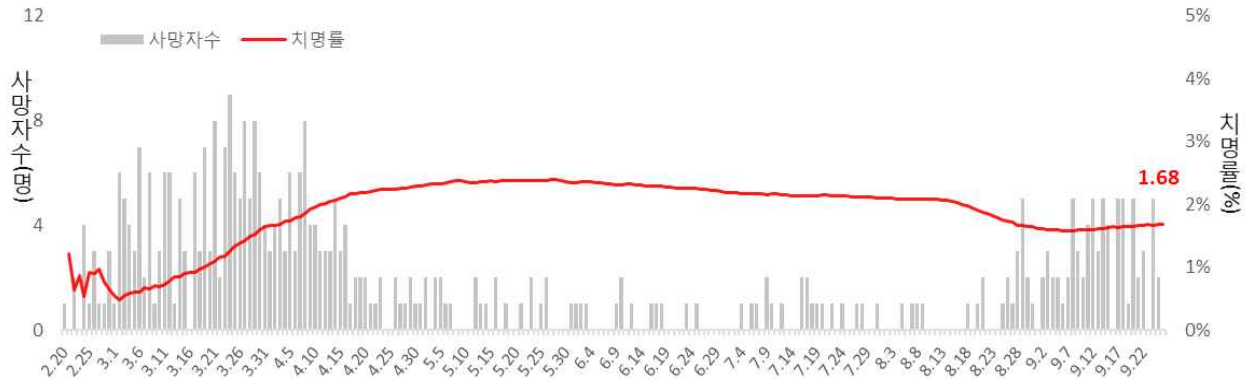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395 (100)	1.68
성별	남성	1 (50.00)	208 (52.66)	1.93
	여성	1 (50.00)	187 (47.34)	1.47
연령	80세 이상	0 -	200 (50.63)	20.86
	70-79	2 (100.00)	128 (32.41)	6.82
	60-69	0 -	43 (10.89)	1.16
	50-59	0 -	18 (4.56)	0.41
	40-49	0 -	4 (1.01)	0.13
	30-39	0 -	2 (0.51)	0.07
	20-29	0 -	0 (0.00)	0.00
	10-19	0 -	0 (0.00)	0.00
	0-9	0 -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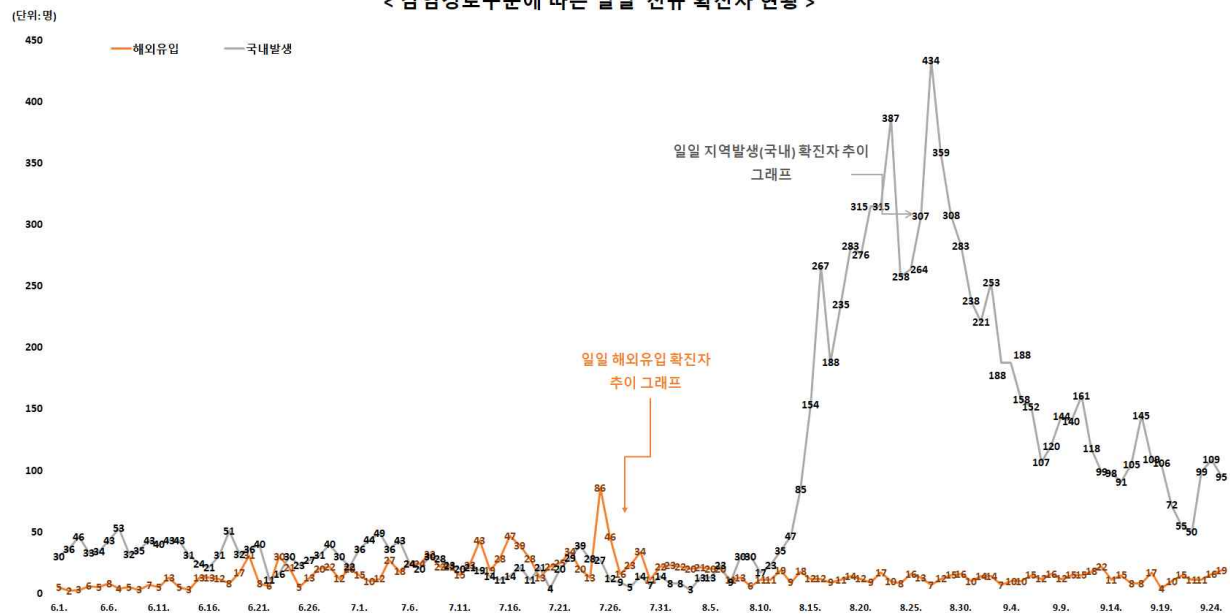
< 위중·중증환자 현황 >

구분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계	164	157	157	158	160	160	150	152	146	141	146	139	126	128
중증	89	86	85	85	88	84	76	79	74	68	73	63	54	58
위중	75	71	72	73	72	76	74	73	72	73	73	76	72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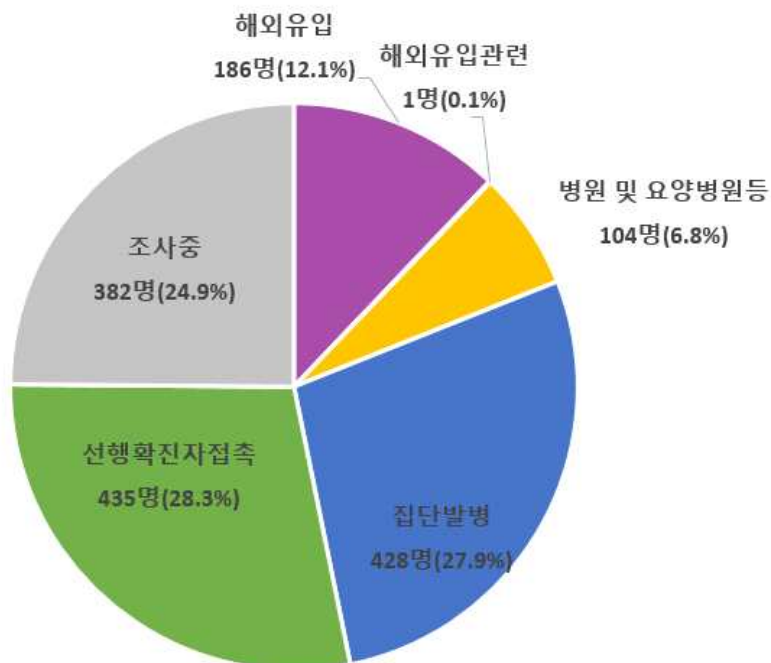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128	58 (100)	70 (100)
80세 이상	24	11 (19.0)	13 (18.6)
70-79세	53	22 (37.9)	31 (44.3)
60-69세	38	20 (34.5)	18 (25.7)
50-59세	7	1 (1.7)	6 (8.6)
40-49세	5	3 (5.2)	2 (2.9)
30-39세	1	1 (1.7)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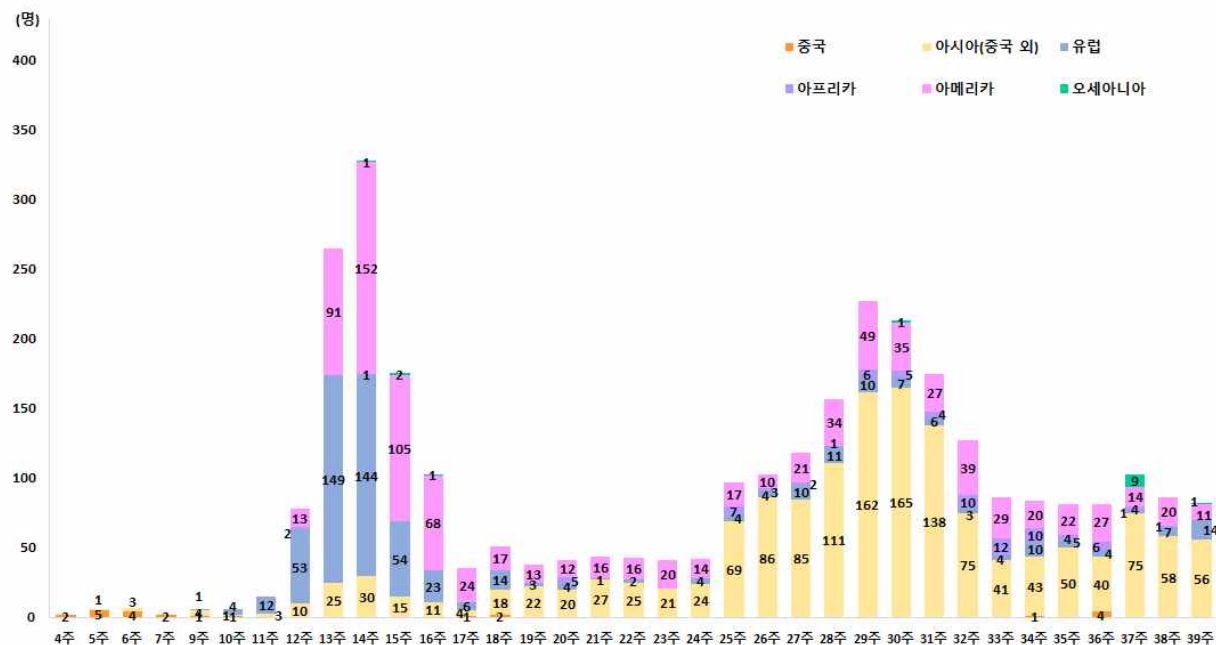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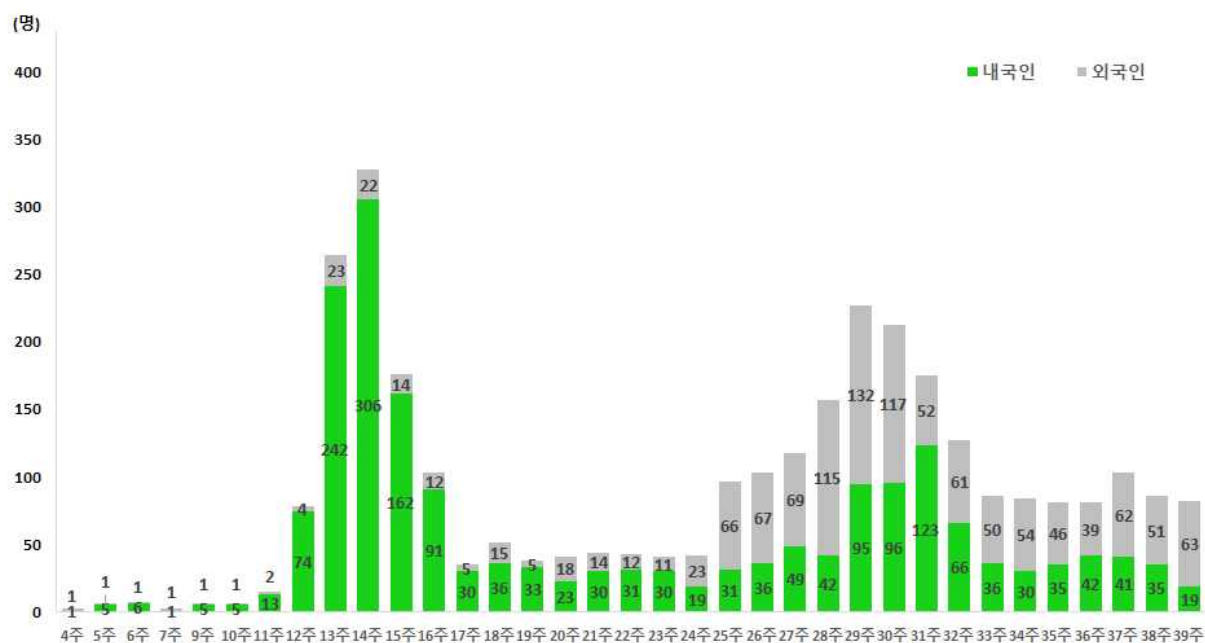
< 최근 2주간 (9.12일 0시~9.25일 0시까지 신고된 1,536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추가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1건 변경 (터키→우즈베키스탄)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 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서울	5,152	411	2,809	8	2,729	72	929	1,008	57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 서울 638명, 경기 392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27명) * 서울 129명, 경기 129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08명) *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부산	407	49	254	12	187	55	56	48	3	
대구	7,129	80	5,369	4,512	853	4	932	748	0	
인천	901	99	607	2	597	8	102	93	3	
광주	490	53	375	9	360	6	33	29	2	
대전	357	30	168	2	166	0	116	43	0	
울산	145	36	67	16	47	4	28	14	0	
세종	75	14	47	1	45	1	10	4	1	
경기	4,299	571	2,380	29	2,285	66	726	622	27	
강원	223	26	132	17	114	1	38	27	1	
충북	167	32	85	6	72	7	27	23	3	
충남	475	58	269	0	268	1	85	63	1	
전북	120	37	45	1	44	0	23	15	3	
전남	168	35	102	1	99	2	24	7	0	
경북	1,530	55	1,136	566	570	0	198	141	6	
경남	288	73	165	32	130	3	24	26	1	
제주	59	20	11	0	10	1	22	6	0	
검역	1,470	1470	0	0	0	0	0	0	6	
합계	23,455	3,149	14,021	5,214	8,576	231	3,373	2,912	114	•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관련(7명) * 경기 6명, 충북 1명 • 강남구 케이티원큐(통신판매업) 관련(5명) * 경기 3명, 서울 1명, 인천 1명
	(%)	(13.4)	(59.8)	(22.2)	(36.6)	(1.0)	(14.4)	(12.4)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아시아·태평양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미국	6,828,785	49,176	199,600	807	2.92	2074.99
인도	5,732,518	86,508	91,149	1,129	1.59	418.83
브라질	4,591,604	33,536	138,108	836	3.01	2161.77
러시아	1,128,836	6,595	19,948	149	1.77	784.46
콜롬비아	777,537	7,102	24,570	173	3.16	1561.32
페루	776,546	3,650	31,568	94	4.07	2360.32
멕시코	705,263	4,683	74,348	651	10.54	533.08
스페인	693,556	4,143	31,034	129	4.47	1494.73
남아프리카공화국	665,188	1,906	16,206	88	2.44	1144.90
아르헨티나	652,174	12,027	13,952	470	2.14	1446.06
프랑스	458,132	12,730	31,273	39	6.83	699.44
칠레	449,903	1,380	12,345	24	2.74	2402.04
이란	432,798	3,605	24,840	184	5.74	522.70
영국	409,733	6,178	41,862	37	10.22	611.54
방글라데시	353,844	1,666	5,044	37	1.43	219.23
이라크	332,635	5,055	8,754	72	2.63	823.35
사우디아라비아	331,359	561	4,569	27	1.38	971.73
파키스탄	308,208	799	6,437	5	2.09	150.64
터키	308,069	1,767	7,711	72	2.50	371.17
이탈리아	302,537	1,640	35,758	20	11.82	511.04
필리핀	294,591	2,802	5,091	42	1.73	272.52
인도네시아	257,388	4,465	9,977	140	3.88	95.51
카자흐스탄	139,289	747	2,043	0	1.47	748.87
중국	85,322	8	4,634	0	5.43	6.01
일본	80,041	273	1,520	8	1.90	63.07
싱가포르	57,639	12	27	0	0.05	976.93
우즈베키스탄	53,667	616	445	2	0.83	163.62
키르기스스탄	45,757	127	1,063	0	2.32	738.02
호주	26,973	31	859	5	3.18	107.46
말레이시아	10,505	147	133	3	1.27	32.32
태국	3,516	2	59	0	1.68	5.07
베트남	1,069	1	35	0	3.27	1.10
독일	278,070	2,143	9,428	19	3.39	337.46
스웨덴	89,756	0	5,876	0	6.55	888.67
대한민국	23,455	114	395	2	1.68	45.24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 즐겁고 안전한 연휴나기 안내

○ (기본원칙) 시설별·상황별 방역 수칙 준수

- △ 동거 가족끼리 연휴보내기
- △ 사람 간 2m이상 거리두기
-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
- △ 어르신을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 △ 안전한 방문지 선택
 - 사람이 물리지 않는 야외 공간
 - 환기가 잘 되는 실내
 - 사람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장소(사전 예약제 활용)

① (안전한 야외활동) 산책 등 가벼운 운동 및 기분전환을 위한 야외활동

- ▶ 한적한 근린공원
- ▶ 집근처 산책로·등산로
- ▶ 인근 휴양림 등

② (안전한 실내활동)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실내활동

- ▶ 문화·과학포털 등 온라인 무료 제공 서비스 즐기기
- ▶ 국·공립 미술관·전시관·박물관 예약 방문
- ▶ 방송사별 추석 연휴 특집 프로그램 즐기기 등

③ (안전한 마음전하기)

- ▶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는 영상통화로 마음 전하기

□ 10월 연휴 고향·친지 방문 시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 · 친지 방문 자제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쉽이 있는 추석”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 (부득이하게 방문 시) 장소·동선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최소화

* (실내, 대중교통 수단 내부)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자제, 대화·통화 자제
(실외)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유지,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경우마스크 상시 착용

① (이동할 때)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비대면 서비스(온라인예매, 모바일 체크인 등) 활용,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휴게소에는 최소시간만 머무르기 등

② (고향 집에서)

△가급적 짧은 시간(기간) 머무르기,
△어르신 등 고위험군 만나는 경우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식사 시에는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차례 등 제례 참석 인원 최소화,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 목례로 표현하기

③ (성묘 · 봉안시설 방문)

△온라인 성묘 적극 활용,
△혼잡하지 않은 날짜, 시간 활용, △최소 인원으로 최소시간 머무르기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중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중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